

□성명서□

물가 잡겠다고 농민 물어뜯는, 장관의 사냥개가 된 당국자들!

개탄스럽다.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가공무원들이 농식품부당국자들(이하 '당국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낙농가들을 향해 초법적인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소속 상관인 장관의 하명(下命)에 절대 복종하며, 물가 잡겠다고 낙농가들을 잡는 사냥개가 되어 버렸다.

당국자들은 낙농진흥회에는 불법적인 안건상정을 중용하며 이사회개최를 압박하는 한편, 낙농진흥회 농협·조합장측 이사들을 진흥회 이사회에 참석시켜 개의정족수를 채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와 낙농관련조합협의회가 공동입장문(8.6)을 통해 진흥회 참석여부를 포함한 공동행동을 결의하자, 며칠 전부터 식품산업정책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나서 농협중앙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국자들은 심지어 농협 및 조합장측 이사 중 특정인 2명을 거론하며 이사회개의를 위해 반드시 참석시킬 것을 농협중앙회에 강요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낙농가대표들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면에 당국자들의 어떤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참으로 개도 웃을 일이다.

언론에도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지난 8.4일 낙농진흥회소위에서 축산경영과장은 21원 인상분 철회에 대해 한마디 언급 없이, 낙농가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1원 원유가격 삭감안을 이사회를 통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는 소위에서 정부가 낙농가대표들에게 21원 인상분 철회를 간곡히 요구하였지만 낙농가대표들이 반대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유가 남는데도 원유가격이 오른다며 연동제 시스템이 문제라는 몰상식의 언론 플레이를 자행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강도 원유감산정책 기조와 역대유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현재 우유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년간 연동제에 의해 고작 7원/ℓ 오른 원유가격을 물가의 주범으로 모는 자가당착에 당국자들이 빠진 것이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국산우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치즈,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가격까지 오른다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자행한 낙농가단체·대표를 향한 회유와 협박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명백한 직권남용죄(罪)이다. 그간 낙농업계는 갈등과 반목도 많았지만, 농식품부의 주도 하에 합의를 대원칙으로 규정과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왔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지난 수년간 쌓아온 상호신뢰의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일체의 직권남용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그 죄상을 만천하에 밝혀 끝까지 단죄할 것이다.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1. 8. 12(목)

한국낙농육우협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